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 오리산업 안정대책(安定對策) 건의



⊗ HPAI 장기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

1 생산분야

- 생산된 물량을 출하하지 못해 전 업계 도산 위기
- 개별농가는 자체 냉동 능력이 없어 출하일령(45일) 이상이 되는 오리를 출하하지 못해 생산비는 증가하고 판매를 못해 사지에 내몰린 상황(45일령이상 일일 230g×kg당 사료비 500원=일일 초과사 사료비용 115원 증가)
 - 농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찾지 못하고 있음
- 계열업체는 4월에 생산된 물량 중 65%내외는 자체 냉동한 상태에서 5월 생산물량 중 80%내외가 자체 냉동이 예상되어 관련업계 연쇄 부도 위기에

처해 있는 상황

- 4월 총 생산물량 6,366천수 중 65%인 350만수가 판매되지 못하고 냉동 비축된 상황
- 5월 총 생산물량 6,194천수의 80%가 출하되지 못하고 냉동 비축될 전망
- 오리 생산, 판매 순환구조상 관련 농가, 종오리 사육 농장, 부화장, 유통업체, 요식업소까지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함
- 계열업체 판매부진에 따라 매출 물량이 냉동 창고에 적체되면서 자금이 묶여 자금 회전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
 - 부화장 새끼오리 판매대금 결제 전면 중단 위탁농가 위

【표. 1】 계열업체 판매량(系列業體販賣量)

구분	발생이전 주간평균(A) (3.27~4.2)	발생이후(B) (4.1~4.30)	발생이후(C) (5.1~5.8)	증감율		
				B/A	C/B	C/A
오리고기 판매량	61,519수	37,717수	19,247수	-39%	-49%	-69%

※계열사 11개업체 조사자료

【표 2】요식업소 소비량(料食業所消費量)

구분	발생이전 주간평균(A) (3.27~4.2)	전순평균(B) (2008.4.1~4.30)	발생이후(C) (5.1~5.5)	증감율		
				B/A	C/B	C/A
오리고기 소비량	9,007수	4,455수	3,313수	-51%	-26%	-63%

※오리고기 전문 체인업체 5개소 조사자료

- 탁 수수료 지급 전면 중단, 사료업체는 결제 못하면 사료 공급 중단, 생산기반 왜해로 이어지는 순환구조
 - 계열사들의 오리고기 판매는 5월8일 현재 발생 이전에 비해 70% 감소함【표1. 참조】
 - 10일 현재는 80%까지 떨어진 상황
 - 오리고기 전문점의 오리고기 판매량 역시 5월5일 현재 발생 이전에 비해 63% 감소하여 도산위기
 - 현재는 약 90%이상 소비가 급감한 상황
- 【표2. 참조】

2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책의 문제점

【방역관련】

- 농림부 가축방역팀의 AI 근절을 위한 대책만으로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
 - 발생상황에 대한 보도가 신고, 1차양성, 최종확진 등 여과 없이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
-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, 식약청과 서울시, 국방부등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위험성 내용을 여과 없이 자료를 내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
 - 조상병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감염보도(사실이 아닌 사항)
 - 국내 감염이 없는데도 마치 감염을 예상하여 대책수립에 대한 자료 보도

【생산 및 경영안정 대책】

- 발생된 농장 및 살처분 농가에 대한 대책으로 일관
 - 살처분 보상비, 생계안정자금, 발생 및 역학관련 수매 등
 - 계열업체 및 농가 등 실질적으로 경영손실을 입고 있는 관련업계의 대책은 미 수립

- 소비급락으로 기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이나 판로가 없는 문제 해결을 통한 경영안정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
 - 관련 산업 종사자는 소비급락에 따른 경영손실을 보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자율수급에 맡기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보지 못한 대책으로 일관

3 오리산업 생계안정대책(生計安定對策)

【단기방안】

▶가금산물의 정부 긴급수매(家禽産物政府緊急收買)

- 해당 농가 및 계열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섬
 - 발생이후 1개월간 냉동물량 보관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65%로 부담수준을 넘어섬
- 자금 회전이 전혀 안되고 있어 사료비 대기도 힘든 상황에서 자체 냉동비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그대로 방치하면 전 산업이 붕괴

▶정부 긴급수매 방안(政府緊急收買方案)

가. 수매대상(收買對象)

- 육용오리 계열농가 및 일반농가 물량에 대해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하여 수매 물량을 결정
- 수매희망 농가 및 대상물량은 시·군에서 조사하여 주무부처에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수매

나. 수매가격(收買價格)

- 현 육용오리 평균 수매가격인 수준에서 수매
 - 현 육용오리 수매가 수당 4,590원, 생체 kg당 1,530원
- 생체 3kg, 지육율(65%)1.95kg, 지육 kg당 수매가

격 2,353원

다. 수매기간(收買期間)

- 오리고기 소비물량이 발생이전 대비 80% 수준까지 도달하거나 산지 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유지되면 수매 중단
 - 생산비 5,500원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되면 수매중단

라. 수매 예상물량 및 소요예산 (收買豫想物量 · 所要豫算)

- 5월과 6월 출하물량 1,200만수의 70%인 840만수를 수매
- 소요자금은 수당 4,680원 393억원 소요 예상

▶ 경영안정 자금 긴급지원(經營安定資金緊急支援)

- 총 1,088억원의 경영 안정자금 지원
- 계열유통업체 경영안정비용 : 688억원
- 3개월간 계열업체 생산비 및 매출액에 대한 경영비 지원
- 2008년 4~6월까지 계열업체 생산비 582억원, 매출액 106억원에 대한 경영 안정비용 지원
 - 계열업체 3개월 육용오리 생산물량 10,594천수×생산비 수당 5,500원 소요에 따른 생산 소요자금 582억원
 - 계열업체 3개월 수당 매출액 1천원×10,594천수에 대한 총 매출액 106억원
 - 계열유통업체 40개소, 가공공장 및 유통업체 100개소

【부화장, 사육농가, 종오리농장 경영안정비용 지원】

- 400억원
- 종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 경영안정자금
 - 100호×호당 2억원 = 200억원
- 개별농가
 - 200농가×호당 1억원 = 200억원
- AI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경영체의 담보여력이 있어야 하나 담보능력 및 신용보증서 한도가 대부분이 초과된 상태이므로 간이 신용보증을 통한 농신보 보증만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지원책을 강구

【장기대책】

▶ 종자오리 수매 도태를 통한 수급안정

- 종자오리에 대한 30% 113천수 내외를 수매하여 장기적인 수급안정에 기여
 - 113천수×수당 주령에 따른 살처분 보상가격으로 수매
 - 소요예산액 = 2만원×113천수=22억6천만원
 - 전체 종자오리 530천수의 30%인 159천수의 물량 중 기 살처분된 종자오리 46천수를 제외한 물량을 수매 도태
- 2003년 발생 당시 10만수내외의 종자오리를 수매 도태를 통해 소비가 회복된 6개월 이후에는 가격안정에 기여한바 있음
 - 적은 비용을 들여 가장 효율적인 정책 효과를 거둠

▶ 소비확대 대책(消費擴大對策)

- AI 발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운영중인 홍보실로 통합하여 국민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도토록 유도
 - HPAI 확진·판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보도하고 신고 및 1차 양성 발표 등은 보도 자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국민 불안요인을 불식
- 국민에게 HPAI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조리해서 먹으면 절대 감염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소비 확대 대책을 수립
 - HPAI는 가금류 접촉을 통해 감염되나 조리한 가금류 고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지 않는 이유 설명
- 정부는 AI에 대한 소비자 불안 요인이 무엇인지를 여론 기관을 통해 조사하여 불안요인을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홍보대책을 수립

▶참고 : 계열업체 경영손실 및 생산비 추가부담액

가.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손실 예상액

- 계열업체 총 생산물량 10,594천수(2008년 4~6월)
 - 2007년 4~6월 3개월 도축실적 대비 10,386천수

- 2008년 4~6월 생산 예상물량 12,463천수 (생산 전년 대비 20% 증가)
- 계열업체 생산 예상물량 10,594천수(계열업체 생산 85% 담당)
- 가격하락에 따른 3개월 경영손실 예상액 106억원
 - 발생이전 대비 가격은 5,800/수당...4,800/수당으로 17% 하락함
 - 수당 손실금액 1,000원×10,594천수 = 106억원

나.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냉동비축 부담

- 판매물량 감소로 인한 냉동비축 부담 예상액은 504억원 (4~6월까지 3개월)
 - 판매물량 전체 10,594천수의 70% 감소하여 실 판매물량의 7,415천수가 냉동 비축 예상

- 수당 판매 금액은 AI 발생이전 6,800원×7,415천수 = 504억원

다. 계열업체의 사료비 등 생산비 소요금액

- 3개월 사료비 소요금액은 354억원
 - 사료비 수당 3,348원×10,594천수 = 354억원
- 3개월 생산비 소요 금액은 582억원
 - 수당 생산비 5,500원×10,594천수 = 582억원

본회 및 각 가금단체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일반수매 및 종계·종란 수매를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음(수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「AI 발생관련 가금산업 경영안정 방안」에서 이어집니다.)

가금류 사육농가, 종계장 및 부화장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기본 수칙

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을 철저히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한다.



- 사료·계란·동물약품 운반차량, 닭 수송차량 및 일반 차량이 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농장 안에서 이동할 경우 반드시 통제하고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.
- 가급적 벌크 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운전자나 기사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한다.

※외국인 근로자 고용시에는 개인소지품의 철저한 확인과 함께 소독을 실시하고, 외출시에도 방역관련 주의사항을 미리 교육시킨다.

※파리, 모기 등 해충과 쥐가 각종 전염병의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살충 구충을 철저히 실시한다.

※사육중인 가금류에서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개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, 읍·면장 또는 시·도 가축방역기관,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한다.

